

광주 RFID 종량기 설치 기준 '차이'...주민들 불멘소리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음식쓰레기감량·환경개선...2013년부터 공동주택에 보급 동·남·광산구 60세대, 서·북구 100세대...“동일 기준 필요”

“비슷한 규모의 옆 동네는 설치하던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광주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종량기의 설치 기준이 자치구별로 상이해 ‘소의’ 주민들이 불멘소리를 하고 있다.

24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을 위해 ‘RFID 방식 종량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역 공동주택에 종량기가 설치되고 있다.
RFID 종량기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용자 지정된 세대에 배부된 카드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이 카드를 종량기에 인식

시키면 뚜껑이 열리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측정돼 요금에 부과된다.
환경부의 정책에 힘입어 RFID 종량기는 광주 5개 자치구에 널리 보급돼왔다. 이날 기준 자치구 별 설치 개소·대수, 이용 세대는 ▲동구 18개소·123대·7천463세대 ▲서구 138개소·1천105대·6만9천449세대 ▲남구 142개소·755대·5만219세대 ▲북구 132개소·816대·6만814세대 ▲광산구 132개소·1천158대·6만9천357세대 등이다.
RFID가 보급되면서 각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감소했다. 감소량이 가장 큰 동구의 경우 설치 초기인 2013

년 1만4천355t이 배출됐던 것에 비해 지난해 총량은 9천525t으로 약 35% 줄었다.
2013년 2만3천823t이 발생했던 남구는 지난해 1만7천500t을 기록하면서 27%가량 감소했다.
서구와 북구는 2013년에 각각 3만4천589t, 4만6천707t이 배출됐으나 지난해 2만5천913t, 3만7천804t으로 줄어들면서 감소량은 25%와 19% 수준으로 산출됐다.
광산구 역시 2022년 2만5천t에서 지난해 2만4천t으로 4% 정도 감축세를 보였다.
이렇듯 RFID 방식 종량제 사업으로 실제 음식물쓰레기가 감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나, 광주 5개 자치구의 종량기 설치 기준이 조금씩 달라 동일 규모의 공동주택임에도 보급 유무가 엇갈리고 있다.
실제 동·남·광산구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종량기를 설치하나, 서·북구는 기준을 100세대 이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서·북구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에선 “옆 동네에선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구 양동에 거주하는 정모(30대)씨는 “RFID 종량기의 가장 큰 이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바로 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 다른 구에선 되는 설치 기준이 우리 지역에선 미달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췄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설치 기준을 100세대 이상으로 정한 것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형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재 1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율이 88% 정도여서 향후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무안 일로농협, 조합장·직원 비리로 '못매'

보험사기 재판 중...하나로마트 점장은 '재계약' 금품수수 의혹

무안 일로농협이 조합장과 일부 직원들의 비리로 못매를 맞고 있다.
24일 일로농협 등에 따르면 최근 본점 앞 주차장에서 전직 임직원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일로농협 보험사기 및 하나로마트 비리규탄 집회를 열고 비리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일로농협 조합장·임원 등 4명이 현재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로마트 점장이 입점 소상공인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점장은 입점주에게 '조합장 상납' 등을 운운

하며 대출 방법을 제시하면서까지 끈질기게 돈을 요구했고, 이에 한 입점주는 17.9%라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입점주는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한 데다, 다른 입점주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8월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안 일로농협 조합장과 임원 등을 규탄하며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이후 점장은 본인의 금품수수 등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받은 돈을 돌려줬으나,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로농협 조합장은 “하나로마트 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재계약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로농협 안팎에서는 “신속한 수사와 결과에 따른 관리자의 처벌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자신을 돕다가 수사를 받게 된 선거 운동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8명(벌금 100만~300만원)에 대해서도 이 군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 받게 된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비용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피고인들의 변호사비 납부가 수사 본격화 이후 이뤄진 것에 보면 법률서비스 제공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선 이전 행위였던 만큼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인 만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이 군수는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책 향기나는 '정오의 책방' 광주 서구가 제10회 책 향기나는 책 축제를 앞두고 관내 지역 서점과 함께하는 '정오의 책방'을 24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광주 출생 한강 작가의 도서 판매와 내가 읽한 책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러졌다.
(광주서구 제공)

“함께한 극단적 선택, '자살방조 미수' 유죄지만...”

범원, 10대女·20대女에 '집유' 관용 구형 당시 檢도 '최대한 선처' 요청

범원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해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범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4일 자살방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대·여)씨와 B양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A씨의 자택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들은 서로의 자살을 방조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우울증 등을 겪던 A씨는 수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곳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B양을 만나면서 이들은 서로 연락하며 지내왔다.
범행 당일에도 이들은 A씨의 집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B양은 이 과정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했는데, 이를 보고 지인이 신고하면서 이들은 구조됐다.
검찰은 구형 당시 “피고인들은 우울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 경제적인 어

려움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에 벌금형이 없어 최저 징역형(A씨 징역 1년, B양 징역 1년·단기 10개월)을 구형하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것이기에 서로의 자살을 돕는 방조 행위는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EAM DREAM DREA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